

“빼곡했던 대본...한국적 오컬트라서 새로울 것” 입소문 탄 ‘엘리멘탈’ 1위 역주행

‘악귀’ 김태리 “한 얼굴로 두 인물을 연기, 어려워”

“김은희 작가님 대본이라 달랐던 점을 꼽자면 12부 내내 이야기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구조적으로도 빈틈이 없었죠.”

드라마 ‘시그널’, ‘킹덤’ 등을 집필한 김은희 작가가 이번에는 한국 민속학에 기반한 오컬트 미스터리 드라마 ‘악귀’를 선보인다.

주연을 맡은 배우 김태리는 최근 진행한 SBS 새 금드라마 ‘악귀’ 제작발표회에서 “오컬트라는 장르에 익숙하신 분들도 한국형 오컬트는 새롭게 느껴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악귀’는 악귀에 쫓겨와 그 악귀를

불 수 있는 남자가 의문의 죽음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그린다. 해외 오컬트물에 단골로 등장하는 엑소시즘(퇴마의식) 대신에 민속학자들이 공부하는 설화, 세시풍속, 무속신앙 등을 작풍 곳곳에 녹여냈다.

극중 김태리는 세상을 떠난 아씨의 유품을 받은 뒤부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죽음들에 휘말리게 되고, 악귀에 쓰여 점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인물이다.

김태리는 “한 얼굴로 두 인물을 연기해야 한다는 점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극 중 김태리는 생활력이 부족한 엄



배우 김태리 <SBS제작>

가득 담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돌변해 물임감을 끌어올린다.

김태리는 “구산영과 악귀에 쓰인 구산영을 연기할 때 각 인물이 처한 상황

에만 집중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구산영을 표현할 때는 그가 귀신에 쫓기 전에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욕망을 내면에 가지고 있었는지 고민했어. 악귀를 연기할 때는 한이라는 정서를 묘사하는 데 초점을 맞췄죠.”

구산영을 괴롭히는 악귀가 보이는 재력이 집안 출신 민속학과 교수 염해상 역에는 배우 오정세가 나선다. 전작에서 보여줬던 능글맞고 장난기 넘치는 모습을 꼭 지워냈다.

연출을 맡은 이정림 PD는 “익숙하면서도 낯설고 기묘한 느낌을 구현하려고 노력했다”며 “15세 관람가라는 시청 등급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내놨다”고 귀띔했다. /연합뉴스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영화 ‘엘리멘탈’이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3’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25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엘리멘탈’의 전날 관객 수는 20만 5천여명으로, 박스오피스 1위 (매출액 점유율 31.5%)였다.

지난 14일 3위로 개봉한 ‘엘리멘탈’은 시간이 지나면서 순위를 높여나가는 역주행 양상을 보인다. 이 영화의 누적 관객 수는 103만1천여명이다. 이 영화의 누적 관객 수 3위는 전날 18만여명(27.6%)을 모아 2위였다. 지난달 31일 개봉 이후 줄곧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던 ‘범죄도시 3’, 25일 만에 2위로...이번주 1천만 돌파 예상 /연합뉴스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의 한 장면.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제작>

누적 관객 수는 95만9천여명이다. 다음 주말쯤 천만 영화의 고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3위는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10만2천여명·16.8%)였다. /연합뉴스

Table with 7 columns: Day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Title, Content, and Date (음력 5월 9일).

광주매일 TV 프로그램 안내 kjdaily.com PC·스마트폰 YouTube Facebook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장스케치], [파이인터뷰], [뉴스], [기획], [현장스케치], [파이인터뷰], [뉴스], [기획], [현장스케치], [파이인터뷰], [뉴스], [기획]

TV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EBS1. Includes program names and times for various channels.

도로교통공단 TBN 광주교통방송 생명을 살리는 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 출발! 광주대행진, TBN 차차차, 하이브리드 라디오, 달리는 라디오.

KCTV 광주방송 KCTV 광주방송 채널 5번. 프로그램 안내: KCTV뉴스, 포토힐링타임, 출발V시대. 이쁜 주 주요 프로그램: KCTV미디어인문학, 맛있는 발골 서울음광, 달려라KCTV 스페셜.